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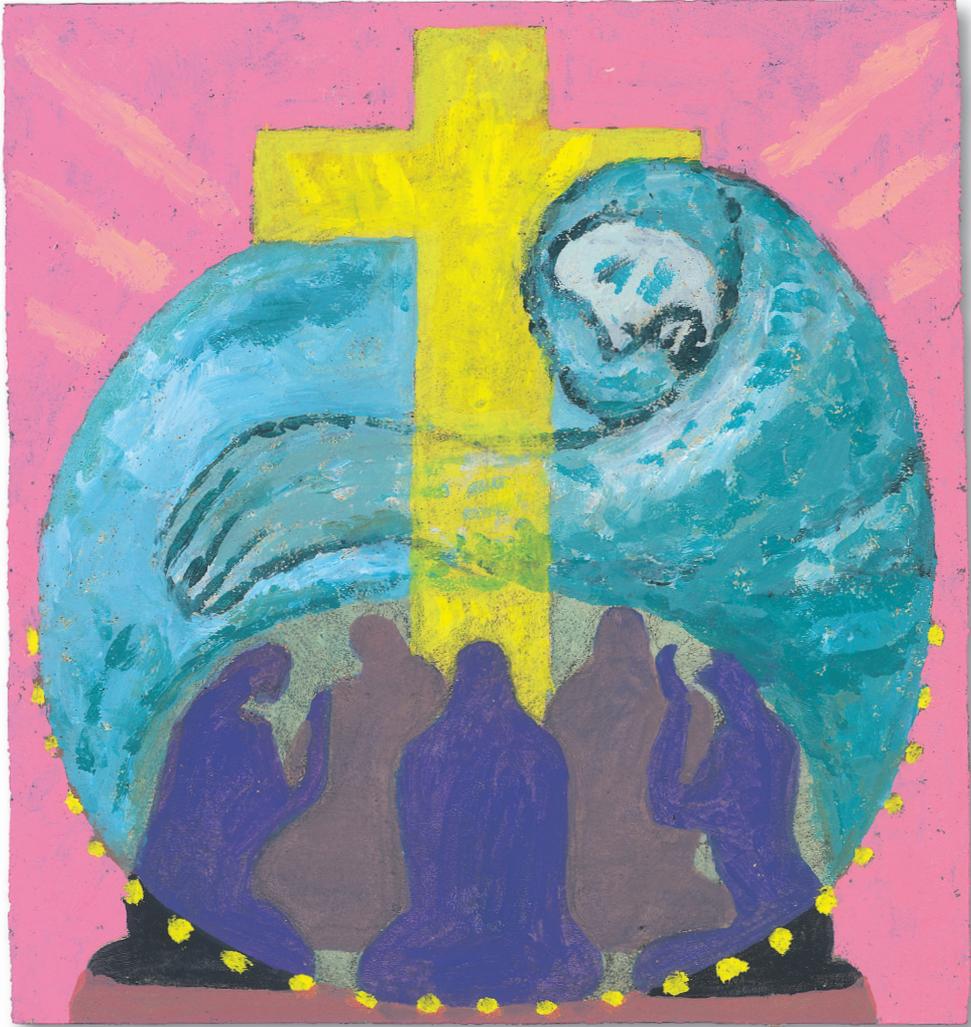
대구 주보

연중 제23주일 2017. 9. 10.(가해) 제2069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릴레이로 이어지는 기도의 기적을 우리는 압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귀해진 요즘 대화의 통해 하나 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에제 33,7-9 **제2독서** 로마 13,8-10 **복음** 마태 18,15-20.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끝내 포기하지 않을...



최의정 바오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아픈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유능한 의사(醫師)를 필요로 하고 좋은 약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좋은 병원이나 검사 장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 자신이 낮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어떤 명의(名醫)나 좋은 약도 소용없습니다. 낮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픈 사람이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속담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아픈 곳을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를 타일러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복음 말씀에서 언급되는 그 형제는 공동체의 친교에서 벗어나 있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영적인 의미에서 환자임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 둘이 만나서 타일러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쏟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은 그러한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처방까지도 안내해줍니다. 자신이 아픈 사람이

고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임을 인정하는 이에게 용서와 기도로써 도울 것을 오늘 복음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8)라는 말씀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음을 뜻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써 도와야 하니,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 18,1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요구하는 바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맥에 의존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의무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순 없기 때문에 형제를 위한 충고나 그에 준하는 관심과 사랑, 용서와 기도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실천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루는 친교, 그 사귄의 신비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넓혀져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둘째 독서에서 밝혔듯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로마 13,10)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필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느님!

강진기 안드레아 신부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원장

“심장이 뛰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거나 공포심을 느끼거나 혹은 극적인 상황이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과 의지에 앞서 심장이 뛰는 것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으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몸이 심장을 통해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장이 뛰는 건 꼭 생명활동과 연관해서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 간절히 원했던 일의 결과를 기다릴 때, 혹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걸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에서 가끔 혹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과 의 관계 안에서, 복음적 사명을 실천하는 일 앞에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이후 교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소위 ‘심장이 뛰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해성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신학생

도 만났고, 청년대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감동적인 미사를 봉헌한 적도 있으며, 피정과 기도회와 찬양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을 결심을 하거나 자해(自害)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바꾸어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더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본당 청년회를 위한 “하남아이”(새로운 본당 청년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와 “청년 리더십”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 앞에서 순박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본당 청년회를 하남아이로 바꾼 후, “청년회에서 함께하는 보람을 느꼈다.”라던가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육신이 살아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뛰어야 합니다. 욕망을 불태우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뛰어야 합니다. 저는 하남아이와 청년 리더십을 통해 “심장이 뛰는” 젊은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의 심장을 제대로 뛰게 하는 분이십니다. **강진기**

나의



성소 이야기 2

손상오 루카 신부 | 원로사제

보좌생활의 시작

남산본당에서의 보좌생활, 남들이 다 어렵다고들 하던 신현옥 신부님과의 동거는 그분을 새롭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너무나 자상하시고 다정다감하신 성격에 불편 없이 1년을 보냈다. 삼덕보좌로 발령 나기 전 신부님은 나에게 좀 더 같이 지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지만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지 못했다. 남산본당에서는 주일학교를 맡아 젊은 교사들과 어울려 동촌 유원지랑 동해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했던 즐거운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첫 사제생활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삼덕본당에서의 보좌생활, 두 명의 보좌가 있어서 내가 제1보좌, 이성배 신부가 제2보좌로 생활하게 되었다. 주일학교는 이신부가 맡았고, 부인들과 중견 청년들 사목은 내 몫이었다. 삼덕본당은 나의 꿈과 성소를 키워준 요람이어서 어려움 없이 잘 지냈고, 특히 풍보 강찬형 가스팔 신부님이 우리 집안 어른들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더욱 편히 지낼 수 있었다. 흔히 본당신부님과 보좌신부님 사이의 어려움을 나는 한 번도 겪지 않았으니, 참으로 큰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삼덕본당에서 보좌생활로 1년을 보낸 뒤, 1972년 나에게 뜻밖의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서인석 신부님의 주선으로 프랑스 오를레앙 교구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4년간의 프랑스 유학생

활은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겠고, 이미 다른 기회에 다루었던 자료가 있으니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전례와 전례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끝맺어야겠다.

주임생활의 시작

1976년 9월, 귀국하자마자 동인본당으로 발령이 났다. 유학중에 발병했던 허리 디스크가 아직 채 완쾌되지 못한 상황이라 좀 회복할 여유도 없이 시작된 본당 주임생활은 주임신부로서 처음 맡은 본당이라 열성적으로 사목했었고 그것이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부임한지 1년 6개월 만에 재발한 디스크로 입원하게 되었고 아쉬운 마음으로 동인본당을 떠나야 했다.

당시 비어있던 매일신문사 사장 사택에서 몇 개월 지낸 후,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으로 거처를 옮겨서, 소위 발령받지 않은 수녀원 지도신부 생활을 하면서 교구 사목국 일을 거들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1981년 허리 디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칠곡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칠곡본당에서 보낸 4년간의 생활은 동인본당에서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았다. 그래도 그곳 주일학교 꼬마들과 어울리며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고, 그때 인연을 맺은 초등학교 꼬마들이 지금은 어엿한 가장 또는 가정주부가 되어 지금도 가끔 만나 옛날을 상기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 **필문**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감사송 感謝頌 <라> praefatio <영> preface

미사의 성찬 전례 때 예물기도에 이어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사제의 인사로 시작되는 대화 부분부터 “거룩하시도다” 직전까지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감사송에서 표현됩니다. 사제는 거룩한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 전체에 대하여, 혹은 그날과 축일 또는 그 전례 시기의 특별한 신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감실 龕室 <라> tabernaculum <영> tabernacle

성당 안에 성체를 모셔 둔 곳을 말합니다. 감실 앞에는 성체를 모셔 둔 것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은 등(성체등)을 켜 두고 있습니다.

강론 講論 <라> homilia <영> homily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은 가톨릭 성직자(주교, 신부, 부제)에게 유보되어 있으며(교회법 제767조 1항 참조), 그 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 날 미사의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 참조). 또한 강론은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인간 상황에, 하느님 말씀의 빛을 갈구하는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54항 참조).

강복 降福 <라> benedictio <영>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祝福)’과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降福)’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함께 사용해 왔으나, “축복”과 “강복”을 구분하여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강복”이라 합니다. 전례 때에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복을 합니다.

강생 降生 <라> incarnatio <영> incarnation - 육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 곧 성자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어 신성(神性)을 지니신 채 인성(人性)을 취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강생” 또는 “육화”(肉化)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하느님이요 참인간이 되셨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개두포 蓋頭布 <라> amictus <영> amice

장백의로 목을 다 가리지 못할 경우에 사제가 착용하는 개두포는 아마포로 된 네모난 흰 천으로서,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어 어깨에 걸치며 그 위에 장백의를 입습니다. **장백의**

〈발췌_ 『천주교 용어집』 (2017)〉

교구장 동정



9.3(일) _ 유천성당 10주년 기념미사 및 견진성사

9.6(수) _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송별 미사 (명동성당)

총대리 동정



9.3(일) _ 백천성당 10주년 기념미사 및 견진성사

9.6(수) _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송별 미사 (명동성당)

9.7(목) _ 오천중고등학교 견진성사



성 이윤일 요한 반신상 축성식 및 대축일 미사

일시 : 9월 20일 수요일 11:00

장소 : 경북 문경 여우목 성지

※ 잘못된 성경해설서 유포주의!!

최근 우리 교구를 비롯해 타 교구에까지 **잘못된 성경해설서**들이 유포가 되고 있어 신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 책들은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정통 가르침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발견하거나 비인가된 사적인 성경공부 모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 성서사도직(053-250-30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성경해설서〉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소홀했던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11일(월) 19:00 성모병원 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13일(수) 19:00 별관 4회합실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미باه회 월례미사	9월 16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1일(월) 11:00 월성성당	-	-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젊은이 기도 모임(Hello 하느님)

일시: 9.13(수) 19:30 미사 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장소: 주교좌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성전

진행: 성바로로팔수도회

준비물: 성경 / 문의: (010)2503-5185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때

장소: 원하는 곳

문의: 이종호 수사, (010)3800-1579

제16차 영성의집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9.22(금) 22:30~23(토) 16:00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미사도구

신청: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집, (055)382-9465~6

예수회 가을 성소 식별 피정

기간: 9.22(금)~24(일)

장소: 여주 프란치스코수녀회 피정의집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개인 피정(각 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9.19(화)~20(수)

시니어 피정: 9.26(화)~27(수)

장소: 효령하늘집

지도: 정기모(요한보스코) 신부

문의: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새빛학교 국어·ABC영어반 신입생 모집

국어: 맞춤법과 문장의 이해(월, 수, 금)

영어: 발음과 기초 회화(화, 목 13:00)

영어반 개강: 9.12(화)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 신앙 특강

일시: 9.23(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순교할 이들과 살아 보았나요?

강사: 김정숙(소화데레사)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행복한 책 읽기 및 영화 읽기

책 읽기: 9.20(수) 14:00(10주) / 12만원

영화 심화: 9.21(목) 14:00(8주) / 10만원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행복프로그램

문의: 권마리아수녀, (010)4409-5013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4차)

일시: 9.27(수)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10.15(일)

장소: 청주교구 배티성지

회비: 3만원(중식포함)

신청: 9.13(수)부터 선착순

문의: 관덕정, 254-0151

22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발: 9.16(토) 8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지원사업(학비의 20%)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명동성당 앞 임마누엘 결혼정보
 결혼정보 44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산나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곽앤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의과교수
 ☎(053)626-8881~5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세요!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제50회 군인 주일 행사 및 2차 헌금 날짜 이동

추석 연휴 관계로 군인주일 관련 행사와 2차 헌금은 10월 15일(연중 제28주일)로 이동합니다.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17(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 순회 기도

환영미사: 9.17(일) 23:00
감사미사: 9.18(월) 10:00 / 19:30
9.19(화) 10:00 / 19:30
환송미사: 9.20(수) 10:00
장소: 도량성당 / 문의: (054)453-0010

교구 도보 성지순례

일시: 9.23(토), 한티성지 (13:00 미사)
순례코스: 가산산성 주차장~한티성지, 선원사 앞 공영주차장~한티성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기간: 9.28(목)~29(금),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 선착순 60명
마감: 9.15(금) / 피정비: 6만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기초봉사자 교육 및 671차 성령세미나

기간: 9.23(토)~24(일)
성령세미나: 10.13(금) 13:00~15(일) 15: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임

9월 가나 강좌

일시: 9.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제3기 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11.7(화)~16(목)
장소: 필리핀(사랑의 선교회)
회비: 9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거룩한 독서를 위한 주일복음 읽기

기간: 9.11~12.18 매주 월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제1강의실
강사: 박병규 신부 / 신청비: 5만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성경과 심리 집단 상담

일시: 9.19 매주 화 15:00~17:00
19:00~21:00
비용: 간식비 2만원 / 선착순 8명
신청: 소람상담소, 250-3100

시편 성가, 발성법 연구

일시: 9.10(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JPIC(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 캠프 모집

기간: 10.7(토)~8(일)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제목: DO YOU KNOW 치맥?
대상: 교구 내 청년 / 참가비: 1인 4만원
문의: 대구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중국 친선교류 평신도 회원 모집

월례회(성유스티노성당 미사, 친교식사)
중국 성지순례 및 문화를 통한 친목활동
동아리(중국어 성경, 회화, 음악 등)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2662-1560

제10기 제대꽃꽂이봉사자 수강생 모집

기간: 9.20(수)~10.31(화)
과정: 초·중급과정 1년 / 고급과정 1년
전문과정 1년 / 연구과정 1년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1-1543

채용 | 안내

가톨릭신문사 직원 채용

직종: 편집·취재·영상기자 및 광고홍보팀
(시간선택제 및 파트타임 가능)
문의: (010)5118-4285
http://www.catholictimes.org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 · 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종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보건복지부 선정
악한 형진 시범사업 지정병원
전인병원
수술 후 암·재활·통증 치료
053) 670-6000

성모지압안마센터
지압, 교정, 안마
어깨결림, 목, 허리, 골반교정
수험생, 직장인, 주부 환영
TEL. 053.631.2020
HP. 010.2814.5566
달서구 도원동 564 3층 (엘리베이터 有)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정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니엘)/청능사 053)554-0044
2호성 간삼성(서남시장) 2번 출구 앞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